

<2017. 3. 18 시행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문항 분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사	1, 12			
고대	2	14		
중세	5		11, 18	
근세				6, 16
근대태동기	4, 15			8, 17
근대개항기	3, 7, 9			10
일제강점기	13		19	
현대	20			

이번 2017년 3월 18일에 시행된 사회복지직 9급 ‘한국사’ 영역은 ‘중상’ 정도의 난이도다. 작년 사회복지직 9급 문제와 비교하면 난이도가 높는데, 이는 시행처가 서울시였기 때문으로, 작년 서울시 9급 문제와 비교해서는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편이다. 우선 단원별 문항 출제 비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대별로는 전근대사가 13문제, 근현대사가 7문제로 근현대사 파트가 약 3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근대사에서는 선사와 여러 나라의 성장 2문제, 고대사 2문제, 중세사 3문제, 근세사 2문제, 근대 태동기가 4문제로 출제되었다.

2. 분류사별로는 정치사가 11문제(선사 포함), 경제사가 1문제, 사회사가 3문제, 문화사가 5문제 출제되었다. 사회사가 3문제 출제되었다는 점 말고는 일반적인 출제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 문답형이 8문제, 원문 사료 제시형이 7문제, 응용사(자)료 제시형이 3문제, 연표 및 순서나열형이 2문제 출제되었다. 최근 시사테마를 반영하여 대외 관계 문제(4번, 5번, 7번, 9번, 15번)의 비중이 높았던 것이 특이사항이다. 특히 9번 문제의 경우 작년 서울시 7급 문제를 거의 그대로 출제된 문제기 때문에 최신 기출문제 공부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4. 고난도 유형으로는 소현세자의 행적을 물어본 4번, 정약용의 초기 토지개혁론을 물어본 8번,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를 물어본 16번이 있다. 4번 문제의 1번 선지는 미래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반영되었으며, 16번 문제는 한영우 교수의 『다시찾는 우리역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고려 후기 왜구의 활동을 물어본 5번 문제는 디테일한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여 체감 난이도를 높이기도 하다.

5. 신유형으로는 매우 생소하거나 디테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암기한 내용보다는 제시된 자료의 맥락이나 선지의 논리구조를 통해 정답을 추론해야하는 8번 문제와 20번 문제가 있다.



정답(A책형)

1. ①	2. ④	3. ②	4. ④	5. ①
6. ①	7. ④	8. ④	9. ③	10. ①
11. ③	12. ②	13. ④	14. ③	15. ①
16. ②	17. ③	18. ③	19. ②	20. ②

1. 선사시대 유적지

정답 : ①

사천 늑도 유적에서 발견된 반량전은 중국 진(秦)에서 사용한 화폐로, 당시에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오답 분석

② 부산 동삼동 패총은 신석기 시대의 유적으로, 청동기 시대의 유적인 주춧돌을 사용한 지상 가옥이 발견되지 않았다. ③ 단양 수양개 유적이 아니라 청원(청주) 두루봉 동굴 유적이다. ④ 울주 반구대가 아니라 고령 장기리(고령 양전동 앞터) 바위그림에 대한 설명이다. 울주 반구대 바위그림에서는 여러 종류의 고래와 동물 등이 새겨져 있다.

(2017 해법국사 1권, 철기의 사용, 42쪽 /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 32쪽/ 구석기 시대 유적지, 31쪽 / 청동기·초기 철기 시대의 예술, 45쪽)

2. 고대의 정치제도

정답 : ④

고구려에서는 국초에 국상·대보 등의 재상을 두어 국정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6세기 이후에는 대대로·막리지의 이를 담당하였다.

오답 분석

① 신라 화백회의의 의장은 상좌평이 아니라 상대등이다. 상좌평은 백제의 수상이다. ② 백제의 공복 색은 자·바·청·흑 순이다. 자·단·바·녹·흑은 고려의 공복 색 순서다. ③ 신라는 진덕여왕 때 정무기 관인 품주를 분화하여 국가 기밀을 관장하는 집사부, 재정을 관장하는 창부를 두었다.

(2017 해법국사 1권, 고대 삼국의 통치 조직 정비, 120~121쪽)

3. 현의 6조(독립협회)

정답 : ②

궁내부 내장원이 아니라 탁지부다. 독립협회는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할 것을 주장하며 재정을 일원화할 것을 건의하였다.

오답 분석

① 현의 6조의 1조, ③ 현의 6조의 4조, ④ 현의 6조의 5조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017 해법국사 2권, 현의 6조, 705쪽)

4. 병자호란

정답 : ④

㉞의 임금인 인조는 북벌론을 적극 추진한 국왕은 그의 아들인 효종이다.

오답 분석

① ㉠은 소현세자다. 병자호란으로 청에 인질로 잡혀 온 소현세자는 베이징에서 아담 살을 만나 서양 문물도 적극 수용하였다. 귀국할 때는 아담 살의 소개로 천주교 신자인 청의 환관과 궁녀를 데리고 들어왔으며, 망원경·자명종·천구의 등 서양 물건을 가져왔다. ② 병자호란 때 청에 잡혀갔던 포로들이 조선 측에서 몸값을 내거나 간절히 청하면 풀어주곤 하였는데, 이를 속환이라고 한다. 속환으로 돌아온 조선인 중 남성들은 환영을 받았으나 여성들은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자로 낙인찍혀 모욕을 당하거나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강요받고 문중으로부터 쫓겨나는 등 큰 사회 문제가 되었다. ③ 심양관은 청의 심양에 인질로 잡혀 갔던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등이 거주하였던 관소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은 인질 신분이었지만 이곳에서 조선과 청의 연락을 담당하였고 외교 업무도 수행하였다. 심양관은 조선의 입장을 대변하고 청의 부당한 간섭이나 무리한 요구를 외교적으로 무마하기도 하였다.

(2017 해법국사 1권, 병자호란, 408쪽)

5. 고려의 대외관계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이성계의 황산대첩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성계는 전라도 남원 운봉현까지 쳐들어온 왜구를 지리산 부근 황산에서 크게 물리쳤다. ① 흥건적의 침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개경 수복에 공을 세운 정세운, 이방실, 김득배 등은 흥왕사의 변 때 김용에 의해 살해되었다.

오답 분석

① 왜구의 약탈로 민생이 어려워져 세금을 감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한 조세를 운반하는 조운선과 조세를 보관하던 조창이 약탈당하게 되면서 국가 재정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다. ③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하려는 시도는 고려 말~조선 초에 수차례 있어 왔다. 창왕 때 박위가 전함 100척을 이끌고 대마도를 토벌하였으며, 세종 때 이종무 또한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④ 고려 말 왜구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약탈하였는데, 공민왕 9년에는 강화도 교동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이에 공민왕은 잠시 백악(장단)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철원이나 충주 등 중부 내륙 지방으로의 천도를 논의하기도 하였다.

(2017 해법국사 1권, 흥건적과 왜구의 격퇴, 262~263쪽)

6. 성리학의 발달(이이)

정답 : ①

『성학집요』의 저자는 율곡 이이다. ① 이황의 주리론에 대한 설명이다. 이이는 이(理)는 홀로 발현할 수 없고 오직 기(氣)가 발현할 때 그 위에 올라타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분석

② 이이는 『성학집요』에서 현명한 신하가 군주에게 성학을 가르쳐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이이는 해주향약, 서원향약을 만들어 보급하면서 향약의 전국 시행을 주장하였으며, 수미법 시행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을 주장하였다. ④ 이이는 존화주의적 성격의 사서인 『기사실기』를 편찬하였다.

(2017 해법국사 1권, 이이, 493쪽 / 16세기의 역사서, 471쪽)

7. 텐진 조약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텐진 조약의 내용이다. 일본은 이 조약을 통해 청국과 일본군이 조선에서 동시 철수하고, 일본은 청국과 동등하게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획득하였다.

오답 분석

① 한성조약은 갑신정변의 결과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조약으로, 배상금 지불과 공사관 신축비 부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② 제물포 조약은 임오군란의 결과 일본이 조선과 체결한 조약으로, 공사관 신축비 등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③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 전쟁의 결과 일본과 청이 맺은 조약으로, 이를 통해 일본은 청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종주권 포기, 요동 반도와 타이완 할양, 배상금 2억 냥 지급, 통상의 특권 부여 등을 약속받았다.

(2017 해법국사 2권, 한성조약과 텐진조약, 676~677쪽 / 제물포 조약, 674쪽 / 시모노세키 조약, 690쪽)

8. 실학의 발달(정약용)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정약용의 「전론」으로, 그의 초기 토지개혁사상인 여전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약용은 이전의 경세치용 학파들 사이에서 논의된 정전제, 균전제, 한전제를 검토하여 한계점을 지적하였고, 그 대안으로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이후에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정전제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국가가 토지를 사들여 10분의 1을 공전으로 하고 나머지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자고 주장하였다. ㉠ 정약용은 기존의 정전제가 넓은 평원의 토지와 한전(旱田, 밭)을 대상으로 시행된 것인데, 산과 골짜기가 많고 수전(水田, 논) 중심의 조선에서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 정약용은 균전제의 경우 해마다 변동하는 인구와 토지의 비육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비현실적인 토지 개혁안이라고 비판하였다.

(2017 해법국사 1권, 정약용, 605~606쪽)

9. 해외 시찰단의 파견

정답 : ③

㉠ 1차 수신사(1876) → ㉡ 2차 수신사(1880) → ㉢ 조사시찰단(1881.4) → ㉣ 영선사(1881.9) → ㉤ 보병사(1883)

(2017 해법국사 2권, 해외 시찰단의 파견, 670~671쪽)

10. 근대적 언론의 출현(한성순보)

정답 : ①

제시된 자료는 박영효의 주장으로 고종에게 신문 발행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고종은 이를 수용하여 박문국을 설치하고 <한성순보>를 창간하였다. ① 1883년에 창간된 <한성순보>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다. 이 신문은 한문체로 작성되어 국민과 관리들에게 국내외 정세를 알려 개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관보적 성격을 띠었다.

오답 분석

② <한성주보>에 대한 설명이다. <한성주보>는 최초로 국한문을 혼용하였고, 경우에 따라 한글 혹은 한문만을 쓴 기사를 넣어 독자층을 넓혀 나가고자 하였다. ③ <독립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④ <황성신문>에 대한 설명이다.

(2017 해법국사 2권, 근대적 언론의 출현, 760쪽 / 황성신문, 761쪽)

11. 고려의 중류층

정답 : ③

고려시대에는 중앙 관서의 아랫자리에서 행정 실무에 종사한 서리를 잡류라 부르며, 궁중의 당직이나 국왕의 호종, 간단한 왕명 전달 등의 실무를 맡은 관리는 남반, 중앙의 직업 군인을 군반이라 불렀다.

오답 분석

역리는 지방의 역(驛)을 관리하였으며, 군사 정보 및 왕명을 전달하거나 사신의 영송과 접대를 주요 업무로 하였다.

(2017 해법국사 1권, 고려의 중류층, 297쪽)

12. 고조선

정답 : ②

『삼국지』 『동이전』에 인용된 『위략』에 따르면, 기원전 4~3세기경 연나라가 강성해져 스스로 왕을 칭하자 조선도 독자적으로 왕을 칭한 기록이 있다.

오답 분석

① 중국의 『관자』, 『산해경』 등을 토대로, 요녕성 일대인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고조선이 존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기원전 2세기경 고조선에 망명한 위만은 서쪽 변경에서 세력을 키워 수도인 왕검성에 쳐들어가 준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④ 위만조선은 장기간에 걸친 전쟁으로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나 멸망하였으며, 한(漢)은 고조선의 영토에 한사군을 설치하여 이 지역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2017 해법국사 1권, 단군 조선의 발전과 위만 조선, 49~51쪽 / 고조선의 세력 범위, 47쪽)

13. 의열단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의열단의 칠가살(七可殺)에 대한 설명이다. 의열단은 암살의 일곱 가지 대상으로 조선 총독과 고관, 일본 군부의 수뇌, 대만 총독, 매국노, 친일파 거두, 밀정, 반민족적 토호 열신을 들었다. ④ 의열단원인 나석주는 1926년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철도 회사 및 식산 은행에 폭탄을 투척하고 권총으로 관리들을 저격하는 의거를 일으켰다.

오답 분석

①② 한인 애국단에 대한 설명이다. ③ 밀양 경찰서 투탄 의거는 박재혁이 아니라 최수봉이다. 박재혁은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2017 해법국사 2권, 의열단, 838쪽)

14.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정답 : ③

관료전이 폐지되고 녹읍이 부활한 시기는 경덕왕 대이다. 현강왕은 신라 하대 처용 설화와 관련 있는 왕이다.

오답 분석

① 신문왕은 문무관료전을 차등 있게 지급하였으며, 이후 중앙과 지방 관리의 녹읍을 폐지하고 세조(歲租)를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② 성덕왕은 정전의 지급을 통해 농민이 소유·경작해오던 토지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해주었다. ④ 1933년 일본 쇼소인(정창원)에서 발견된 민정 문서(신라 촌락 문서)는 서원경과 그 부근의 4개 촌락을 대상으로 작성된 문서다.

(2017 해법국사 1권, 통일 신라의 토지제도, 145쪽 / 민정 문서, 144쪽)

15. 백두산 정계비

정답 : ①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현지 답사하여 그 국경을 확정된 내용을 적은 비석이다.

오답 분석

②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토문강은 청에서는 두만강으로, 조선에서는 송화강의 지류로 해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간도 지역의 영유권에 영향을 미친다. ③ 청은 그들의 본거지였던 만주 지방을 성역화하였는데, 조선 사람의 일부가 두만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청과의 국경분쟁이 일어났다. 백두산 정계비는 이를 배경으로 하여 건립되었다. ④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대(1712)에 건립된 비석이다.

(2017 해법국사 1권, 청과의 국경 문제, 529쪽)

16. 조선의 교육제도

정답 : ②

성균관의 입학 자격은 생원·진사 시험을 통해 입학하는 것(상재생)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특별 시험인 승보시 등을 거쳐 입학하는 사람들(기재생)도 있었다.

오답 분석

① 왕세자는 성균관에 입학한 뒤 궁 안의 시강원에서 교육을 따로 받았으며, 이를 서연(書筵)이라고 부른다. ③ 서울의 중등 교육 기관으로는 중학·동학·남학·서학으로 구성된 4부 학당이 있다. ④ 향교에서는 매년 두 번씩 시험을 치러 우등자는 생원·진사 시험의 초시를 면제해 주고 성적미달의 낙강생(落講生)은 균역을 지도록 하였다.

(2017 해법국사 1권, 조선의 교육 제도, 387~388쪽)

17. 조선 후기 농서

정답 : ③

『과농소초』는 박지원의 저서로,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농기구의 개량, 관개 시설의 확충 등과 같은 경영과 기술적 측면의 개선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을 높이자는 논의를 다루고 있다.

오답 분석

①② 『산림경제』는 홍만선의 저서로, 『색경』은 박세당의 저서로, 채소·과수·원예·양잠·축산 등 상업적 농업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④ 『농가집성』은 효종 때 신숙의 저서로 벼농사 중심의 수전 농법을 소개하고, 이양법의 보급에 공헌하였다.

(2017 해법국사 1권, 박지원, 611쪽 / 조선 후기 농서의 편찬, 620쪽)

18. 고려의 귀족

정답 : ③

고려 귀족의 자제는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귀족 신분을 유지 및 세습할 수 있었다.

오답 분석

① 고려의 귀족 세력은 왕족을 비롯하여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② 사림은 조선시대에 등장한 정치 세력이다. ④ 지방 향리의 자제도 과거를 통해 벼슬에 나아가 신진 관료가 됨으로써 귀족의 대열에 들 수 있었다.

(2017 해법국사 1권, 고려의 귀족, 294~296쪽)

19. 신간회

정답 : ②

조선 공산당 계열은 민족주의 좌파(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제휴하여 민족 협동 전선 구성을 추진하여 1926년에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후 1927년 신간회를 창립하였는데, 이때 일부 사회주의자들과 조선 물산 장려계 민족주의자들의 제휴로 이루어진 조선 민흥회와 합동하였다.

오답 분석

북풍회와 고려 공산 청년회는 각각 1924년, 1925년에 조직된 사회주의 단체다. 근우회는 1927년 창립된 단체로, 남녀평등과 여성 교육의 확대, 여성 노동자의 권익 옹호와 구습 타파, 생활 개선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2017 해법국사 2권, 민족 유일당 운동, 881~884쪽)

20.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정답 : ②

모스크바 2국 외상 회의에서는 미·소 양군 사령부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공동 위원회와 한국의 민주적 정당·사회단체들이 협의하여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후 최고 5년 동안 미·영·중·소의 4개국에 의한 신탁 통치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2017 해법국사 2권,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931쪽)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응원합니다.